

광복절 계기, 연해주에서 재외동포와 함께 평화관광의 길을 모색하다

- 8.15~16, 블라디보스토크에서 「재외동포와 함께 여는 평화관광 컨퍼런스」
및 「평화관광을 위한 기업인·전문가 간담회」 개최

【관련 국정과제】 118.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

- 8월 15일(토),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통일부가 지원하고 사단법인 희망래일이 주관하는 「재외동포와 함께 여는 평화관광 컨퍼런스」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다.
 - 현지 고려인 단체들이 주최하는 「제9회 고려인 문화의 날」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민간 차원의 창의적인 한반도 평화관광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.
 - 재러동포와 재중동포가 북한 방문 및 평화교류 경험 사례를 발표하며, 러시아 현지 여행사가 참여하여 북한 관광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.
 - 또한,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, 백천호 현대아산 상무, 박병직 전 한국관광공사 모스크바지사장, 김용재 전 한국관광공사 선양지사장, 천남수 강원도민일보 이사가 참석하여 재외동포 평화관광의 조건과 과제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맡는다.
- 8월 16일(일)에는 「평화관광을 위한 기업인·전문가 간담회」를 통해 전날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평화관광 의제를 실질적인 협력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.

○ 관광분야 및 협력기관 관계자, 재외동포 등이 참석하여 평화관광 협력의 여건을 공유하고, 재외동포 사회와 연계한 동북아 평화관광사업과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.

□ 통일부는 올해 처음으로 「민간 중심 한반도 평화관광협력 기반 구축」 사업을 실시하여 평화관광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, 연말까지 시민사회, 재외동포, 국제사회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.

붙임 : 「재외동포와 함께 여는 평화관광 컨퍼런스」 행사 개요

담당 부서	평화교류실 남북경제협력과	책임자	과 장	김기혁 (02-2100-5830)
		담당자	사무관	강희찬 (02-2100-5832)



- (일시·장소) 2026.8.15.(토) 15:30~18:30, 블라디보스토크 롯데호텔
- (목적) 재외동포와 연계한 한반도 평화관광 협력체계 구축
- (참석자) 재외동포, 민간교류 및 관광분야 관계자, 전문가, 현지 주민 및 지역사회 인사 등
- (주관) 사단법인 희망래일
- (프로그램) 기조발제, 발표 및 토론, 정책제안 등

시 간	내 용
15:30~15:50	개막영상·개회사·환영사·축사
15:50~16:10	[기조발제] 왜 지금 원산갈마인가: 원산갈마 관광과 재외동포의 역할 (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)
16:10~16:50	[세션1] 원산갈마 관광과 동북아 교류 현장 발표1. 재중동포가 바라본 북중 관광교류 경험과 가능성 (배동걸 동북아경제문화협의회) 발표2. 러시아 관광시장에서 본 북한 관광의 현황과 전망 (러시아 현지 여행사) 발표3. 재러동포가 경험한 북한 방문과 평화관광의 의미 (이옥분 재러동포)
16:50~17:00	휴식 및 장내 정리
17:00~17:50	[세션2] 재외동포 평화관광의 조건과 협력 과제 발표1. 과거 관광사업의 경험과 제도적 과제 (백천호 현대아산 상무) 발표2. 러시아 관광시장과 접근 노선 (박병직 전 한국관광공사 모스크바지사장) 발표3. 중국 현지 네트워크와 재외동포의 역할 (김용재 전 한국관광공사 선양지사장) 발표4. 원산갈마와 강원도 (천남수 강원도민일보 이사)
17:50~18:10	[마무리 토론] 지금 가능한 일에서 평화관광의 길을 열다
18:10~18:20	원산갈마 평화관광을 위한 연해주 제안
18:20~18:30	폐회사 및 기념촬영